소네 개요

다카사고시 소네 지구는 덴만구 신사와 소금 채취의 오랜 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845~903)는 학자이자 시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그 영혼은 신도의 학문의 신, 덴진(天神)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901 년, 스가와라 씨가 규슈로 향하던 도중 배가 소네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미치자네는 이때 덴만구 신사 서쪽에 있는 히카사 산에 올라 소나무 씨앗을 심고 자신이 규슈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씨앗은 훌륭한 소나무로 자랐으며, 그 소나무 줄기는 신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 미치자네의 아들인 아쓰시게가 소네를 방문해 부친을 모시는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신사 건물은 오랜 세월에 걸친 소란과 자연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지만, 현재도 같은 장소에 남아있으며 덴만구 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덴만구 신사는 학문의 신으로 덴진(天神)을 모시는 신사 중 하나로, 학업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배하고 있습니다.

소네의 해안가 지역은 소금 제조에 적합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초기까지 염전은 9 헥타르 이상 있었으며, 지역의 염업이 정점을 찍은 1690 년대 후반에는 약 49 헥타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덴만구 신사 북서쪽에는 소금 상인들이 주택과 점포를 지어, 소금 거래를 하는 상업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이리에 가문의 저택 등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